

에베소서에 제시된 대로 그리스도의 몸의 실재를 위해  
연합된 영 안에 생활함  
(2)

성경: 엡 2:22, 3:16-21

III.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거처이다. 우리는 '영 안에 있는 하나님의 거처로 함께 건축되고 있다'  
—엡 2:22.

- A.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어 우리의 눈을 여심으로, 과정을 거치시고 완결되신 삼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포함하신 영으로서 우리의 영 안에 거하시며 우리의 영과 한 영으로 연합되신 것을 보여주시기를 앙망해야 한다—고전 15:45하, 고후 3:17, 롬 8:16, 고전 6:17, 참조 계 3:18.
- B.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즐거운 일은 우리가 하나님의 거처인 우리의 영 안에 머무는 것이다. '영 안에 있는 것'이 온종일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의 모든 활동을 다스려야 한다. 우리의 최고의 누림과 체험은 그 영이신 주님께서 우리의 영과 함께 계시는 것이며 또한 우리가 우리의 영 안에 계신 그분을 은혜의 임재로서 누리는 것이다—롬 1:9, 8:16, 요 4:24, 고후 2:13, 딤후 4:22, 갈 6:18.
- C. 하나님의 거처, 하나님의 집인 우리의 거듭난 영은 하늘에 속한 사닥다리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세워지시기 위한 기반이다.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영으로 돌이킬 때마다,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을 위해 하나님을 우리 안으로, 우리를 하나님 안으로 이끄시는 사닥다리이신 그리스도를 체험한다—창 28:12-17, 요 1:51.
- D. 우리의 영은 언약궤로 예표되신 삼일 하나님의 체현이신 공기 같은 영이신 그리스도의 거처, 곧 지성소이다. 지성소에 있는 언약궤 안에는 (모든 공급의 신성한 근원이신 아버지 하나님을 상징하는) 감춰진 만나와 (부활이신 아들 그리스도를 상징하는) 싹 난 막대기와 (내적인 생명의 법이신 생명의 영을 상징하는) 율법의 돌판들이 있었다—출 25:22, 26:33-34, 히 9:3-4, 10:19-22, 요 11:25, 롬 8:2, 16.
  - 1. 승천 안에 계시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분향단에서 드리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 우리는 지성소, 곧 우리의 영 안으로 들어가, 증거궤와 함께 그 내용물들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체험한다.
  - 2. 우리의 영 안에서 그리스도를 이러한 방식으로 체험함으로써, 우리는 그분 안으로 합병되어 하나님의 증거인 단체적인 그리스도의 일부가 됨으로 그분을 나타내게 된다—출 38:21, 고전 12:12.
- E.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실재는 연합된 영 안에 사는 것이다.
  - 1.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거처인 교회의 건축이 이루어지는 곳이다. 영적인 모든 것들의 실재는 영 안에 있다. 교회 자체가 영 안에 있고, 교회의 건축도 영 안에 있으며, 교회의 영원한 증거도 영 안에 있다—엡 2:22.
  - 2. 영 안에 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 생활과 교회 생활의 비결이자 열쇠이다. 우리가 영 안에 살 때, 그리스도는 우리를 채우시고 적시시어 결국 우리의 온 존재에 침투하시고 우리를 통해 표현되신다.

IV. 우리의 영은 우리의 속사람, 새 인격, 새 영, 새 사람이다. 우리는 몸의 생활의 실재를 위해 능력으로 속사람 안으로 강건하게 되도록 기도해야 하며, 몸의 생활의 실재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얻으시기 위해 우리가 우리 안에 생명으로 거하시는 그리스도를 내적으로 체험하는 것이다—엡 3:16-21.

- A. 에베소서 1장에서 우리의 영은 우리가 교회에 관한 계시를 받기 위한 기관으로 계시되었다. 에베소

서 3장에서 우리의 영은 우리가 교회를 위해 그리스도를 체험하기 위한 속사람, 곧 인격이다. 그 영이신 주님께서 내주하시고 연합되신 우리의 거듭난 영이 속사람이다.

1.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 우리의 인격은 우리의 옛사람인 혼이었지만, 우리가 거듭난 후에는 우리의 새 영, 새 인격, 새사람이 우리의 속사람이다—롬 6:6, 행 2:41, 히 12:9하, 요 3:6, 고후 4:16, 골 3:26.
  2. 그리스도의 몸의 실재는 우리 모두 안에 있는 모든 새로운 인격의 총합, 우리 모두의 영들의 총체로서, 위대한 단체적인 한 인격, 위대한 한 하나님-사람, 한 새사람인 그리스도의 몸으로 귀결되고, 삼일 하나님의 새로운 발명품이자 새로운 창조물인 새 예루살렘으로 완결된다—히 12:9하, 고후 4:16, 엡 2:10, 15, 골 3:10-11, 고후 5:17, 갈 6:15, 계 21:2.
- B. 우리가 우리의 속사람 안으로 강건하게 될 때, 우리의 영 안에 내주하시는 그 영이신 그리스도는 우리의 마음의 각 부분을 공급하시고 적시시고 소유하시고 통제하시어 우리의 마음 안에서 새로운 인격이 되신다—엡 3:16-17.
- C. 에베소서 3장 17절이 계시하는 것은 삼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시어, 그분 자신을 요소로 하고 또한 우리에게서 나온 무언가를 재료로 하여 건축의 일을 하신다는 것이다. 이것은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씨 뿌리는 이의 비유로 설명된다.
1. 주님은 생명의 씨이신 그분 자신을 토양, 곧 사람들의 마음 안에 뿌리심으로, 그들 안에서 자라고 사시며 그들 안에서부터 표현되신다. 토양에 뿌려진 씨는 토양의 자양분에 의해 자라나, 씨의 요소와 토양의 요소 둘 다로 이루어진 하나의 구성체를 산출한다—마 13:3, 23.
  2. 하나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서 자라시기 위한 준비로서, 우리 속에 어떤 자양분들을 창조하여 두셨다. 하나님은 신성한 씨를 위한 토양인 사람의 마음과 함께 인성의 자양분이 있는 사람의 영을 창조하셨다—참조 뵤전 3:4.
  3. 우리의 생명이 자라는 속도는 신성한 씨에 달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씨에 자양분을 얼마나 많이 제공하느냐에 달려 있다. 우리가 자양분을 더 많이 공급할수록 이 씨는 더 빨리 자라고 무성하게 될 것이다—시 78:8, 마 5:3, 8.
    - a. 우리가 우리의 타고난 사람인 우리의 혼 안에 머문다면 신성한 씨의 성장을 위한 자양분이 전혀 없을 것이지만, 우리가 우리의 속사람 안으로 강건하게 되며 우리의 영에 주 의하고 우리의 영을 훈련한다면 자양분이 공급될 것이고 그리스도는 우리의 마음에 그분의 거처를 정하실 것이다—엡 3:16-17, 롬 8:6, 뵤전 4:7, 참조 유 19.
    - b. 생명의 씨이신 주님께서 우리 속에서 자라시어 우리의 완전한 누림이 되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께 절대적으로 열려 있어야 하고 그분과 동역하여 우리의 마음을 철저히 처리해야 한다—마 13:3-9, 19-23.
  4. 한 면으로는 하나님께서 요소이신 그분 자신으로 우리를 강건케 하시고, 또 한 면으로는 우리가 자양분을 제공한다. 이 두 가지를 통해 그리스도 안에 계신 하나님은 그분의 내재적인 건축, 곧 그분의 거처의 건축을 우리의 전 존재 안에서 수행하신다.
- D.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에 그분의 거처를 정하시는 것을 통하여, 우리는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삼일 하나님의 모든 충만에 이르도록 충만하게 되어 하나님을 단체적으로 표현하고 영광스럽게 한다—엡 3:19-21, 참조 창 24:47, 53, 61-67.